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

국제스포츠이벤트의 논쟁적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과의 관계 :  
의제설정과 역의제설정 이론의 경쟁가설 검증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지 윤

# 국 문 초 록

국제스포츠이벤트의 논쟁적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과의 관계:  
의제설정과 역의제설정 이론의 경쟁가설 검증

박 지 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 이벤트 기간 중 발생하는 논쟁적 이슈에 대한 언론과 여론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의제설정 이론과 역의제 설정 이론의 경쟁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 중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에 대한 이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슈에 대해 국내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와 10대 스포츠 매체(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등)에 게재된 기사와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윗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 5일 부터 2016년 8월 13일 까지 총 9일 간 ‘박태환’ 키워드로 노출된 기사와 트윗을 스크리핑 프로그램

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하여 크롤링 하였다.

언론의 경우, ‘박태환’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 455건 중 사진 기사와 중복된 기사 등을 제외하고 183건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여론은 수집된 7,864개의 트윗 중에서 단순 기사 리트윗, 멘션, 그리고 박태환과 연관성이 없는 트윗을 제외하고 총 5,023개의 트윗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속성 의제에 따라 올림픽 참가 당위성, 도핑, 경기전망, 경기결과, 선수활동 지속여부 등 8가지 유목으로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트위터 여론과 뉴스의 보도태도 모두 경기 이전과 경기 기간 중에는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지만, 경기 이후에는 부정이 많아졌다. 또한 트위터와 뉴스의 속성 의제의 시차 간 순위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언론과 여론이 박태환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독립적인 의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주요어: 의제설정, 역의제설정, 올림픽, 스포츠저널리즘

학 번: 2015-21649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1  |
| 2. 연구의 목적 .....               | 3  |
| II. 이론적 배경 .....              | 4  |
|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온라인 저널리즘 ..... | 4  |
| 2. 트위터와 여론 .....              | 6  |
| 1) 트위터의 특성 .....              | 6  |
| 2) 트위터 여론의 특성 .....           | 8  |
| 3. 언론보도와 여론의 상호관계 .....       | 9  |
| 1) 의제설정 효과 .....              | 9  |
| 2) 역의제설정 효과 .....             | 13 |
| 4. 올림픽 언론보도와 여론의 상호관계 .....   | 18 |
| 1) 올림픽 언론보도의 특성 .....         | 18 |
| 2) 올림픽 언론보도 사례 .....          | 20 |

|                       |    |
|-----------------------|----|
|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 | 25 |
| IV. 연구방법 .....        | 26 |
| 1. 분석 대상 .....        | 26 |
| 2. 자료 수집 .....        | 30 |
| 3. 자료 분석 .....        | 33 |
| V. 연구결과 .....         | 40 |
| 1. 연구문제1의 결과 .....    | 40 |
| 2. 연구가설1,2의 결과 .....  | 44 |
| VI. 결론 및 논의 .....     | 47 |
| 참고문헌 .....            | 51 |

## 표 목차

|   |    |
|---|----|
| 표 1. 트위터 및 신문 분석 유목 개념 및 예시 .....         | 35 |
| 표 2. 시기별 언론보도의 태도 변화 .....                | 40 |
| 표 3. 언론 보도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빈도 순위 .....       | 41 |
| 표 4. 시기별 트위터의 태도 변화 .....                 | 42 |
| 표 5. 트위터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빈도 순위 .....         | 43 |
| 표 6. 트위터와 뉴스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등위상관관계 계수 ..... | 44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초기 의제설정 이론 모형 (반현, 2007) .....                                   | 10 |
| 그림 2. 의제설정과 부차적 효과 과정 (McCombs, 2004; 반현, 2004; 반현, 2007<br>재인용) ..... | 11 |
| 그림 3. 인터넷이 매개된 공중 의제 설정 모델 (김성태 & 이영환, 2006) .....                     | 15 |
| 그림 4. 추신수의 '가족 사랑' 프레임 .....   | 21 |
| 그림 5. 양학선의 '가난 극복' 프레임 .....   | 22 |
| 그림 6.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안현수 관련 언론보도 포털사이트 댓글과 헤드라인 .....                   | 23 |
| 그림 7. 박태환 이슈 관련 기사 수 .....   | 30 |
| 그림 8.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코딩 .....  | 31 |
| 그림 9. 박태환 이슈 관련 트위터 버즈량 .....  | 32 |
| 그림 10. 트위터, 뉴스 시차상관분석 결과 값 .....                                       | 45 |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디어의 의제가 대중의 의제를 설정한다는 전통적인 성격의 의제 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 온라인 공론장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매스미디어가 정보와 의제를 독점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반대로 여론에 의해 매스미디어의 의제가 결정되는 역의제 설정 효과(reversed agenda-setting theory)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대중의 다양한 의견이 과급되면서 매스미디어가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기존 매체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가 여론을 통해 먼저 이슈화되고 기존 매스미디어에게 의제가 과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0년 이후 등장했는데, 시발점이 된 사례로는 2002년 SOFA 개정 축구 촛불시위, 2005년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사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제설정-역의제설정 효과를 스포츠 이슈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이슈를 선정한 이유는 스포츠 뉴스가 미디어와 여론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한 뉴스 장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스포츠 이슈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언론과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기사가 많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로 기사가 공유되어 화제가 되는 경우

도 발생하고, 이후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새로운 의제가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봄으로써 스포츠 이슈를 매개로 미디어와 여론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스포츠이벤트 기간 중 발생하는 논쟁적 이슈에 대한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추출한 여론 반응의 내용분석을 통해 의제설정과 역의제설정 이론의 경쟁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이벤트 기간 중 발생하는 논쟁적 이슈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여론의 의제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로 참가한 박태환과 관련된 일련의 이슈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리우올림픽 전후로 박태환에 대한 일반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도가 높아 여론과 기사의 동태과약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태환에 대한 긍정·부정적 태도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금지약물복용으로 인해 그의 선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과거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는 이유 등으로 박태환에 대해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태환에 대해 미디어와 여론이 각각 어떠한 의제를 설정했으며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언론 매체로는 국내에서 스포츠 기사를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는 전문매체 15곳을 선정했으며,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Twitter)의 트윗 내용을 분석했다. 두 사례 모두 ‘박태환’이란 키워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기간은 2016년 8월 5일 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총 9일 간 진행했다. 이에 본 논문은 박태환에 대한 미디어와 여론의 의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며, 각기 어떠한 유의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이슈를 둘러싼 미디어와 여론의 의제설정이론과 역의제설정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온라인 저널리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 구분되는 뉴미디어가 등장했고, 이는 곧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이란 개념을 탄생시켰다(Deuze, 2003).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은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다. 뉴스의 생산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하지만,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종이신문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가 된 것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뉴스 이용자들은 일방적인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뉴스 생산자 혹은 참여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빙상연맹의 파벌과 소속팀 해체 문제로 인해 선수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던 안현수는 안정된 선수생활을 보장한 러시아로 2011년 귀화했다. 그 뒤 안현수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자, 국내 여론은 안현수의 귀화에 원인을 제공한 빙상연맹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그 뒤 안현수 귀화 과정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졌음은 물론이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올림픽 기간 동안 안현수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스포츠 뉴스에서 여론의 의제가 미디어 의제로 파생되는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은 스포츠 미디어 시장 자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장 큰 변화는 신문 지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전문지는 1969년 한국일보에서 일간스포츠, 1985년 서울신문에서 스포츠서울, 1989년 조선일보에서 스포츠조선을 창간하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종이신문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스포츠지 뿐만 아니라 일반종합지, 경제지 역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실제로 매체량 공사기구인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6개의 스포츠신문 유료판매부수는 총 630,786부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2014년도 유료부수 707,611부에 비해 10.85% (76,825부)나 감소한 수치다. 앞으로 지면으로 발행되는 스포츠 신문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신 최근에는 온라인 스포츠매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스포츠·연예 매체 수는 포털사이트 다음 57개, 네이버 137개에 달한다. 이러한 매체 수의 급격한 증가는 생존 경쟁으로 이어졌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언론사가 제목이나 문장 순서만을 변경하여 거의 흡사한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뉴스 어뷰징(News Abusing)’도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이는 온라인 매체의 수익 구조가 대부분 홈페이지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인터넷 트래픽(traffic)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포츠와 연예 같은 연성적 성격의 뉴스는 어뷰징의 주요 대상이 됐다. 실제로 포털 뉴스서비스에서 스포츠·연예 뉴스는 사회(22.0%), 정치(15.8%), 경제(11.3%)를 누르고 가장 높은 비율(31.6%)을 보였다(김위근, 2014). 이는 스포츠·연예 뉴스가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소비되고 있는 뉴스 장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온라인 저널리즘의 등장과 스포츠 뉴스 플랫폼의 변화 등 2000년대 이후 스포츠저널리즘의 생태계는 새로운 환경을 직면하게 됐다.

## 2. 트위터와 여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변화 가운데, 저널리즘 영역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 되는 부분은 바로 대중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이다. 과거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었던 뉴스는 이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성향을 갖게 됐다.

이런 변화를 이끈 중요 기제 중 하나가 바로 ‘SNS’다. SN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개인의 관심사나 일상을 소재로 활발히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황유선, 2011).

### 1) 트위터(twitter)의 특성

트위터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생산, 유통, 공유하는 미디어로 평가받는다(김은미·이주현, 2011). 특히 구성이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40자라는 글자 수 제한 역시 긴밀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되곤 한다(황혜정, 2009).

트위터는 SNS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SNS는 친구 추가 등 서로간의 관계 맺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트위터는 모든 이용자와 관

계 맺기가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심홍진, 황유선, 2010).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그 이용자를 팔로잉(following)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트위터 내용을 구독하여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사람이 매개의 중심이 되는 ‘관계 추구적 미디어’ 라면 트위터는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가 매개의 중심이 되는 ‘정보 추구적 미디어’로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박준·최홍·박성민, 2011; 박상호, 2012). 특히 트위터에서는 팔로워들의 리트윗(RT)을 통해 중요하거나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또 다른 팔로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며, 이러한 과정이 수차례 진행된다면 정보가 무한정을 퍼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대중들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동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정보 교환을 통한 사회 참여’ 또는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등과 같은 이용 동기가 주로 연구되었다(심홍진·황유선, 2010). 그 외에도 트위터 이용자들은 일상 대화, 신변 잡기 노출, 조언 청취, 및 스트레스 해소(Zaho & Rosson, 2009) 등을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트위터는 정보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온라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치사회적 의제에 관한 정보와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경우다(Chen, Nairn, Nelson, Bernstein & Chi, 2010). 지난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선거 캠프는 트위터의 정보 확산력을 이용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거 전략을 펼쳤다. 당시 트위터는 기부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가상공간을 구성했으며, 결국은 이를 통해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고 평가 받는다(Cogburn & Espinoza-Vasques, 2011; 황유선, 2011). 또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트위터는 다양한 정치적 배경의 지도자

들의 의견 표출 공간으로 활용되며 팔로워들을 매개로 그들의 의견이 거의 실시간으로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심이 높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를 단지 사적인 교류의 장으로만 인식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장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이어가는 매개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황유선, 2011).

## 2) 트위터 여론의 특성

여론(public opinion)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경험, 그리고 이에 따라 규정된 성향을 반영하는 수용자들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 현실을 묘사하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의견을 말한다(김재범·이계현, 1994). 여론은 공중이 메시지(이슈)를 공유하고 서로 관심사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닌 메시지에 대한 상호 대화과정을 통해 여론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정보공유와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며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승희·임소혜, 2014) 나랑(Narang, 2009)은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팔로어들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순환 과정이 반복되며 트위터 내 여론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위터는 특정 시점에 형성된 순간의 여론이 즉각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여론 수집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Akcora & Hakan, 2010). 즉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단위로 시시각각 올라오는 다양한 트윗이 업데이트 된다는 점에서 실시간 여론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위터에서 형성된 여론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형성된 여론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여론형성의 주기가 짧다. 이와 같이 순환성과 확산성이 강



한 트위터에서 형성된 여론을 효율적으로 감지하려는 시도는 인터넷여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홍주현, 2011).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트위터의 장점이다.

물론 동시에 여론조사와 같은 대표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상민·황보환·지용구, 2010). 하지만 여론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트위터의 장점이기도 하다.

### 3. 언론보도와 여론의 상호관계

미디어의 의제 설정(Agenda-setting theory) 효과는 미디어와 여론 형성 관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많이 검증되는 이론 중 하나다. 하지만 미디어 수용자를 미디어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인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의제 설정 모델 속 수용자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의제설정 이론에 반대되는 개념인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setting)’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 1)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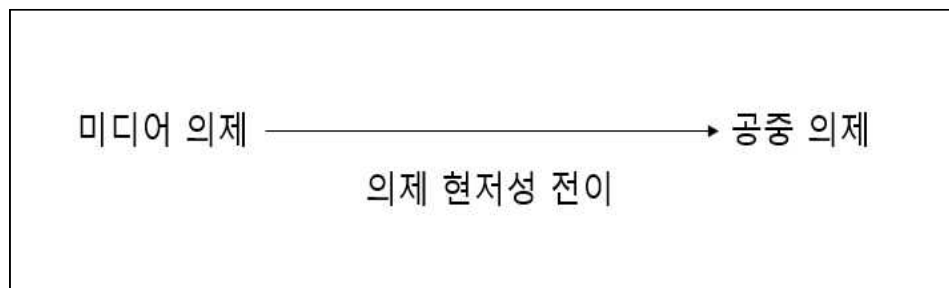
미디어의 의제설정 개념에 대해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다. 그는 ‘외부세계(the world outside)’와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the pictures in our head)’ 사이를 매개하는 일이 미디어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Lippman, 1922).

이후 코헨(Cohen, 1963)은 미디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what to think)” 보다 “무엇에 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 즉 생각의 대상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코헨의 연구는 맥콤스(M. McCombs)와 쇼(D. Shaw)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맥콤스와 쇼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채플힐(Chapel Hill) 시에서 매스미디어에서 강조한 정치 캠페인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는지 조사했다. (McCombs & Shaw, 1972). 조사 결과, 아직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경우, 미디어에서 강조한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미디어에서 설정한 의제가 대중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실증 검증한 연구이다. 맥콤스는 “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 요소를 독자들도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제의 현저성 전이를 주장했다. (McCombs et al., 2000) 이것이 바로 1차적 의제설정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초기 의제설정 이론 모형 (반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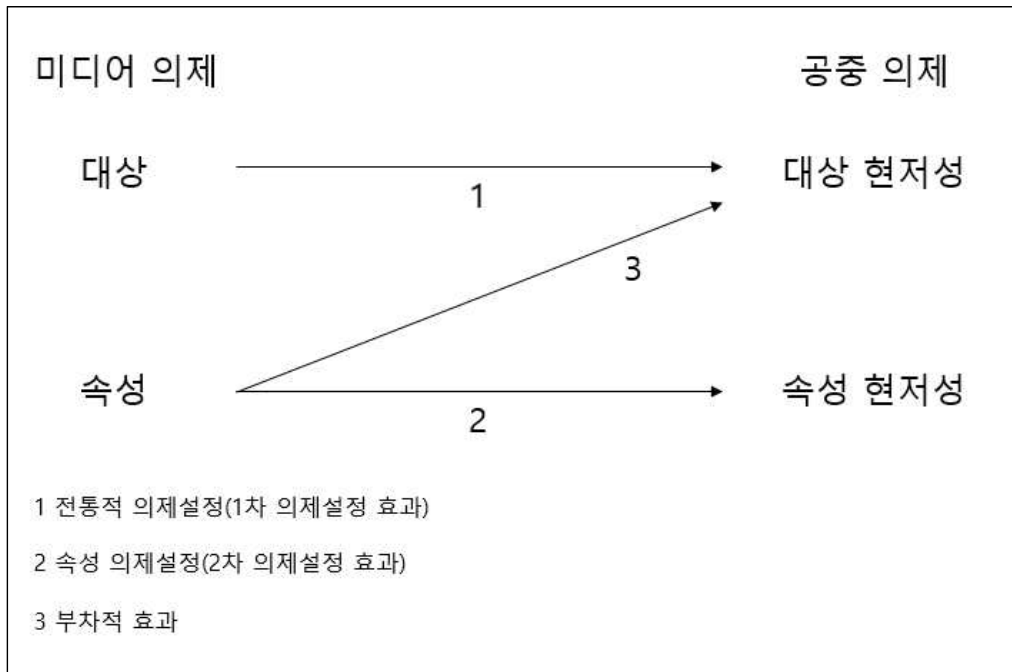


미디어가 강조하는 이슈에 따라, 공중의 이슈와 그 중요성도가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은 1990년대 들어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 about)” 에까지 미디어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다. (Kim, Scheufele & Shanahan, 2002) 이를 ‘2차 의제설정

(second-level agenda-setting)' 혹은 '속성 의제설정(attribute agenda-setting)' 이라고 부른다.

2차 의제설정 이론은 이제 단순한 대상(object)의 차원을 넘어 대상과 이슈의 구체적인 속성(attribute)을 강조한다. 이러한 속성 현저성이 수용자에 전이되어 공중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양선희, 2008). 제1차 의제설정 효과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초기 단계인 '주목(attention)'에 관한 것이라면,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결과(consequence)로써 인간의 '이해(comprehension)'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반현, 2007).

그림 2 의제설정과 부차적 효과 과정 (McCombs, 2004; 반현, 2004; 반현, 2007 재인용)



[그림2]는 1차 의제설정과 2차 의제설정 과정을 미디어와 공중 의제 사이의 화살표로 설명해주고 있다. 즉 미디어 의제에서 대상의 현저성은 공중 의제의 대상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의 속성 현저성은

공중의 속성 현저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3번은 2차 의제설정 연구에서 다뤄지는 ‘부차적 효과(Compelling argument)’를 의미한다. 부차적 효과란, 공중이 미디어 메시지를 해석할 때 어떤 속성들이 다른 것보다 자신과 관련이 많을 경우 그 속성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공중의 전반적 현저성에도 ‘부차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이론이다. (Ghanem, 1997; McCombs, 2004).

2차 의제설정이론은 특정 이슈에 속한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 중 특정 속성이 다른 속성들에 비해 현저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뉴스토픽을 구성하는 여러 키워드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각되고, 이슈의 어떤 측면이 논의되는지 분석한다는 것이다(김은미·양정애·임영호, 2012). 예를 들어 미디어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의 공약, 정책, 학력, 경험 등 다양한 속성 의제를 다루는데, 그 중 미디어가 특별히 강조한 속성이 다른 속성들에 비해 현저화 되는 것이 바로 2차 의제설정이라 할 수 있다(반현, 2007).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2차 의제설정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반현(2004)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보도된 후보자의 학력과 청렴도 차원의 인지적 속성이 후보자 이미지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모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유찬윤 그리고 맥스웰 맥콤스(2007)는 환경 이슈를 주제로 2차 의제설정효과를 검증했다. 지구 온난화 이슈를 환경 보존의 속성과 경제 발전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실험 연구한 결과, 정서적 속성이 인지적 속성보다 이슈의 현저성 전이에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현, 최원석, 신성혜(2004) 역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건을 바탕으로, 조선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사회 갈등사안의 의미를 구성하는 뉴스 미디어의 인지적·정서적 속성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실험 연구했다. 그 결과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속성이 인지적 측면과 감상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역의제설정이론(reversed agenda-setting)

온라인 환경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사라져 모두가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김성태·김혜령, 2011) 전통적으로 수용자라고 불려온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 설정에 종속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의제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그 의제가 역으로 기존 미디어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선희, 2002) 이러한 생각에서 바로 역의제설정 이론이 시작된다.

역의제설정이론은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은 역의제설정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4년과 2005년 황우석 박사는 각각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배양에 성공하였다고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05년 4월에는 스너피라는 이름의 아프간하운드 종의 개를 최초로 복제했다고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하여 다시금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방송보도를 통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었으며, 연구실의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를 채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국가적 인재의 연구를 방해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PD수첩>은 제작진이 물러다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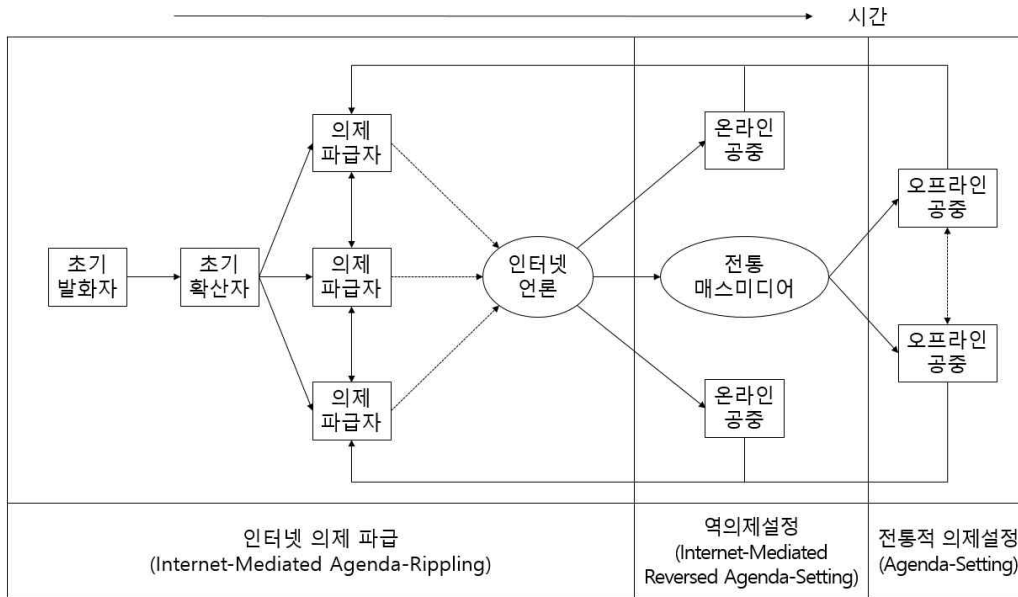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젊은 과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명과학 관련 인터넷 사이트 BRIC(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생물학연구정보센터)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황우석 논문 조작들의 단서들을 제기했고, 글 하나의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논문이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여러 글이 잇따르며 분위기는 급반전됐고, 언론 역시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2006년 1월 10일 서울대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각각 발표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해당 논문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2006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는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렇게 기존의 미디어와 대중의 관계가 전복되는(reversed) 현상이 보여준다. 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중적 논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의제를 미디어가 보도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이 공중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 수립이나 정치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성태, 이영환 2006).

[그림3]의 김성태와 이영환(2006)은 역의제설정 모델의 개념화를 시도했다. 그들이 말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제 형성 및 파급과정은 간단하다. 익명의 평범한 시민 중 한명이 최초의 발화자가 되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개인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특정 이슈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한다. 초기 단계에서 이 메시지를 직접 접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초기 확산자 그룹이 이 메시지를 다른 공간으로 퍼 나르면서 의제는 또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인터넷 언론

그림 3 인터넷이 매개된 공중 의제 설정 모델 (김성태 & 이영환, 2006)



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이슈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의제 파급 과정에서는 기존의 의제설정과 반대로 공중의 의제가 미디어 의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역의제설정으로 설명한다.

역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는 이슈는 크게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뉴스의 성격자체가 연성적·감성적인 이슈라는 점이다. 연성뉴스(soft news)란 공공성이나 사회·정책보다는 선정적이고 인물중심적인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를 말한다(Baum, 2002). 뉴스 장르로 분류해보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정보통신 관련 뉴스는 경성뉴스(hard news)로 분류되며 문화, 연예, 스포츠, 생활 관련 뉴스는 연성뉴스로 분류된다(박선희, 2001, 안중묵, 2011).

현재 뉴스 연성화는 기술발달로 뉴스 전달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스마트해지면서 더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의 특성과 주된 이용자를 고려할 때 보다 연성화된 뉴스가 적합하기 때문이다(이상록·윤영민, 2012).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에서 연성기사에 해당하는 스포츠 뉴스와 문화/연예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9.7%에 이르며, 특히 포털 네이버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들이 제공하는 뉴스가 메인 화면에 가장 많이 게시되고 있다(조화순·장우영·오소현, 2012). 포털은 뉴스 수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연성뉴스를 적극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트래픽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성태와 이영환(2006)은 능동적 수용자들의 공중 의제 설정 사례로 2000년 광주술판사건, 2004년 친일인명사전모금, 2005년 부실 도시락 파문, 2005년 연예인X파일, 2005년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2005년 내무반 알몸 진급식 사건 등을 꼽았다. 이들 대부분 대중들의 이목을 쉽게 끄는 연성적인 성격의 뉴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뉴스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초기발화자의 의제가 급속도로 전파되어 전통적 미디어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달한다.

뉴스의 연성화는 갈등적 이슈의 기사 프레임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인터넷신문은 초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여론의 방향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승자편승효과(Winner Effect)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성 뉴스의 경우 역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 SNS의 발전이다. 뉴미디어가 활발해지며 역의제설정 효과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기존 미디어가 독점하던 ‘의제 설정’ (agenda setting) 기능이 SNS에서도 관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 화재 등 급박한 상황에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속보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기존 미디어들이 트위터 메시지를 토대로 뉴스를 취재, 보도하는 등 의제 설정의 ‘역전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장덕진·김기훈, 2011). 또한 팔로워(follower)수가 수만명에 이르는 유명 정치인,



정치인,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의 SNS는 역시 역의제설정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들이 SNS를 통해 이슈를 제기하면, 삽시간 미디어를 통해 기사가 과생되곤 한다.

이를 토대로 SNS 또는 인터넷 게시물 등과 신문·방송 등 미디어의 매체간 의제설정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진호와 한동섭(2008)은 정치인 트위터 의제가 방송뉴스 의제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정치인 트위터 의제를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뉴스 의제와 비교한 결과, 뉴스 미디어와 일정 부분 의제를 공유하는 등 속성의제에서 유의미한 순위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이승희와 송진(2014) 역시 소셜 미디어와 전통적 방송 뉴스 속성의제 간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세월호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트위터의 초기 속성의제들이 방송 뉴스의 중기 속성의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팟캐스트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 최수연과 임중섭(2013)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사례분석으로 접근해 방송 뉴스와 트위터, 팟캐스트의 의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꿈수다’가 MBC 뉴스의 선거의제와 속성의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팟캐스트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의제를 MBC 뉴스가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구교태(2002)는 미국의 웹사이트 캠페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적 담론형성 과정을 밝혔다. 연구결과, 웹사이트의 의제가 신문과 방송의 의제보다 공중의 의제설정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웹사이트 캠페인이 뉴스 미디어의 의제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제설정기능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공중의 중요한 정보 소스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었다.

## 4. 올림픽 언론보도와 여론

### 1) 올림픽 언론보도의 특성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미디어 매체들 취재 경쟁역시 매우 치열하다. 한국체육기자연맹(KSPU)에 따르면, 2012 런던 하계올림픽에 30여개의 언론사에서 취재기와 사진기자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파견됐으며, 2014 브라질월드컵에도 역시 총 100여명의 기자단이 현장을 누볐다. 이처럼 대규모의 취재단이 파견되는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취재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그러나 취재경쟁의 결과가 반드시 기사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미디어 분야는 정부의 정책적 이유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타 국가와 비교해 미디어와 스포츠 간의 상호역학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스포츠 미디어에 강하게 작용해왔다(임재구, 2014).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보도의 핵심주제로 승리지상주의 스포츠와 성(性), 인기 스포츠 스타, 국가·민족주의 등 편향된 스포츠저널리즘이 나타났고 있다. 실제로 2008 베이징올림픽의 언론보도 성향을 연구한 성유진(2010)에 따르면, 조선·동아·중앙 3개 신문의 기사에 나타난 보도 성향으로 승리주의(48.9%)와 국가주의(23.0%)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올림픽이 여전히 국가 간의 경쟁의 장이자 국가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언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올림픽 메달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와 달리 우리나라 언론사는 금메달 수를 집계하여 종합 순위를 매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단체인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역시 올림픽을 앞두고 종합순위 상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언론사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메달 획득 가능성에 따라 경기 중계가 편성되며 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각종 행사 역시 메달리스트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는 아직 까지도 국제스포츠이벤트에 만연한 승리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승리주의 프레임은 국제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올림픽이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스포츠내셔널리즘이 작용하는 국제전이다. TV 중계를 통해 동시에 같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한다는 인식과 경기 결과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동질감을 형성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는 선수의 경기 내용과 결과를 다룬 기사 못지않게 선수 가족들과 학창시절 동료, 스승의 인터뷰 내용 등을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스포츠 기사는 올림픽 열기에 휩싸여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더라도 대중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올림픽 언론보도가 여론의 성향과 같은 방향으로 쓰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윤경과 정수영(2011)은 <2011 ISU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를 통해 스포츠저널리즘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네이버의 경우 자국 선수인 김연아에 대해 긍정적 기사가 전체 뉴스 중 60.9%의 빈도 분포를 보였으며, 상대 선수인 아사다 마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64.7%의 빈도 분포를 보였다. 또한 영웅주의 프레임,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민족주의/국가주의 프레임 등이 결합하여 선수 개인의 경쟁이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의 경쟁으로 과장·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2) 올림픽 언론보도와 여론의 상호 관계 사례

올림픽 언론보도의 주요 특성으로는 국가주의,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수의 가족이나 개인사를 활용한 연성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의 보도가 잦은 편이다. 이 때문에 올림픽 언론보도는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과 역의제설정이론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의제설정효과가 나타난 사례로는 야구선수 추신수와 기계체조선수 양학선이 있다. 두 선수의 경우, 언론이 경기 외적인 선수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론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는 2001년 메이저리거라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다. 2006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두각을 보이기 전까지, 그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물론 기사를 통한 노출 역시 드문 편이었다. 그러던 중 추신수는 2009년 WBC에 참가하여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치며 대한민국의 준우승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곧바로 인기 TV예능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 번 맹활약을 하며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대표적인 메이저리거로 자리매김했다.

추신수의 경우 마이너리그에서 겪었던 각종 고생담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과정에서 ‘가족’ 과 관련된 프레임이 형성됐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함께 미국에서 고생한 부인 하원미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 구성원이 꾸준히 노출됨으로써 ‘패밀리 맨’, ‘3남매의 아버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 같은 가족 프레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프레임의 보도가 수차례 반복되어 지금 추신수를 떠올릴 때 많은 대중들은 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는 2011년 추신수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더 큰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림 4 추신수의 '가족 사랑' 프레임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의 경우는 주로 ‘가난 극복’에 관련된 프레임으로 많은 기사가 작성됐다.

양학선은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양학선은 체조 남자 도마 경기에서 난도 7.4의 직접 개발한 양 1 (Yang Hak Seon)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당시 도마 최고 난도 기술이었고, 공중에서 3바퀴(1080도)를 회전하는 고난이도 동작이었다. 이러한 양학선의 경기 내용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도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양학선의 가정형편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양학선의 가족들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양학선의 금메달 획득 기사

에는 ‘가난 극복’, ‘비닐하우스 소년’ 등의 프레임이 생겨났다. 또한 양학선이 태릉 선수촌 시절 훈련비를 전혀 쓰지 않고 모았다가 매월 집에 송금하였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효자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 5 양학선의 ‘가난 극복’ 프레임



추신수와 양학선의 사례와는 반대로 여론이 설정한 의제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역의제설정 효과도 스포츠 뉴스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문화 같은 연성뉴스(soft news)가 경성뉴스(hard news)에 비해 여론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기 때문이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같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더욱 엿볼 수 있다. 역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있다.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

랙 1,000m, 1,500m, 5,000m 계주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3개의 금메달을 땀던 국민적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가대표팀 선발전 탈락, 폭행 사건, 빙상연맹 내 파벌 싸움 그리고 소속팀 성남시청 쇼트트랙팀 해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귀화를 결정했다. 그리고 소치올림픽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며 쇼트트랙 선수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림 6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안현수 관련 언론보도 포털사이트 댓글과 헤드라인

|   |  |
|---|--|
| <p><b>호날두유</b><br/>BEST 자 올림픽도 끝났는데 빙상연맹 검찰조사 슬슬 틀어갑시다<br/>2014-02-24 10:56 신고<br/>답글 68</p> <p><b>옥타펠</b><br/>BEST 빙상연맹 찾아가서 쳐대리고싶다 금메달3개내놔<br/>2014-02-22 07:03 신고<br/>답글 41</p> <p><b>DOK2</b><br/>BEST 안현수가 금메달 따서 기쁘다<br/>2014-02-15 22:53 신고<br/>답글 22</p> <p><b>공간</b><br/>BEST 안현수선수 너무 자랑스럽고 수고했어요^^<br/>2014-02-16 01:03 신고<br/>답글 22</p> <p><b>옥타펠</b><br/>BEST 빙상연맹이문제다 처벌해라<br/>2014-02-25 05:55 신고<br/>답글 5</p> | <p><b>한겨레21</b><br/><b>개인의 꿈보다 위대한 국적은 없다</b><br/>기사입력 2014.02.26 오후 01:47   최종수정 2014.04.10 오후 05:27   기사원문</p> <p><b>SBS</b><br/>예고된 '안현수 사태'...참담한 체육계 현실<br/>기사입력 2014-02-26 06:19   기사원문</p> <p><b>한겨레</b><br/><b>'안현수 현상' 후폭풍...체육계에 쓴소리 봇물</b><br/>기사입력 2014.02.12 오후 05:45   최종수정 2014.02.12 오후 06:15   기사원문</p> <p><b>경향신문</b><br/><b>정부 "안현수 논란 빙상연맹 전면 감사"</b><br/>기사입력 2014.02.17 오후 10:47   최종수정 2014.02.17 오후 11:46   기사원문</p> <p><b>YTN</b><br/><b>'빅토르 안' 빙상 개혁 신호탄 될까?</b><br/>기사입력 2014.02.25 오전 05:14   최종수정 2014.02.25 오전 05:21   기사원문</p> <p><b>소치 2014</b><br/><b>빙상연맹 實勢가 초래한 파벌싸움... 실력은 뒷전이였다</b></p> |
|---|--|

소치올림픽 기간 중, 일반 대중들은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빙상연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현수가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연맹 홈페이지는 빙상연맹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폭주로 인해 접속이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현수 선수가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 며 '파벌주의와 줄세우

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고 지적해 빙상연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

당시 안현수와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중 많은 댓글이 빙상연맹에 대한 비판과 안현수에 대한 응원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많은 언론사가 귀화 과정을 재조명하거나 안현수 논쟁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빙상연맹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도 다수를 이뤘다.



###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국제스포츠 이벤트 기간 중 발생하는 논쟁적 이슈에 대한 언론과 여론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의제설정 이론과 역의제 설정 이론의 경쟁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발생한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과 관련된 이슈를 설정했다. 첫 번째로 언론보도와 트위터 내 여론이 박태환에 대한 어떠한 속성 의제를 설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문제 1>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박태환 이슈와 관련해 뉴스 보도와 트위터는 어떤 속성 의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앞서 서술한 추신수, 양학선, 안현수 선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보도에서는 의제설정효과와 역의제설정효과가 모두 나타난다. 이는 스포츠 뉴스의 연성적 성격과 뉴미디어의 등장, 올림픽 보도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2016 리우올림픽에서 발생한 박태환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제설정 효과와 역의제설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의 경쟁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뉴스의 속성의제가 다음 시점의 트위터의 속성의제에 의제설정 효과를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트위터의 속성의제가 다음 시점의 뉴스의 속성의제에 역의제설정 효과를 줄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16 리우하계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로 참가한 선수 박태환과 관련된 일련의 이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경기 예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2016년 8월 5일부터, 올림픽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2016년 8월 13일까지 총 9일 간을 자료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 1) 2016 리우올림픽 ‘박태환 이슈’의 개요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과 200m 은메달, 2012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 200m 각각 은메달, 아시안 게임 3관왕, 아시아 신기록 수립 등 한국인으로 독보적인 기록을 작성한 수영 선수다.

박태환은 만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2004 아테네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일찌감치 수영 유망주로 꼽혔다. 이후 2006 도하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대회에서 박태환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 400m · 1,500m 금메달, 자유형 100m 은메달, 남자 계영 400m · 800m · 혼계영 400m 동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다수의 언론에서 '마린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그는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각각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 · 은메달 획득하며 일약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올림픽 수영 자유형은 수십 년간 올림픽 금

메달리스트를 한 번도 배출해본 적이 없는 아시아 선수들의 불모지였다. 그런 자유형에서 박태환이 금메달을 획득하자, 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범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 일례로 금메달을 딴 이후 CF 출연 제의가 폭주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회 3관왕, 메달 7개 획득하며 녹슬지 않는 실력을 과시했다. 또한 2012 런던 올림픽 400m, 200m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다시금 수영 영웅으로 등극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자유형 200m 동메달 남자 자유형 400m 동메달, 남자 자유형 100m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남자 계영 4x200m 동메달, 남자 혼계영 4x100 동메달, 남자 4x100 계영 동메달 역시 획득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26일, 박태환의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단독]박태환 도핑 양성반응,소속사 공식입장 보니... 2015.01.26. 스포츠조선)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2개월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에 머무르며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때 금지 약물 성분(네비도, 남성호르몬 주사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제의 주성분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도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5년 3월 23일, 국제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이 Endogenous Anabolic Androgenic Steroids 양성 판정을 받은 2014년 9월 3일 시점부터 18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시점 이후에 달성한 결과물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림으로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은 박탈됐다. 박태환의 개인전 메달 뿐만 아니라, 박태환과 같이 계영/혼계영에 출전한 선수들의 메달도 모두 박탈됐다.

논란은 국제수영연맹의 징계가 2016년 3월 2일 종료되며 시작했다.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참가를 원했지만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

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박태환은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국제수영연맹의 18개월 징계가 끝났다는 점에서 '이중 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박태환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열리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하는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하여 1500m 종목에서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A기준 기록을 넘겼으며, 자유형 200미터, 400미터, 100미터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4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전 이틀째인 4월 26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여 리우올림픽 참가를 피했다. 또한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7월 1일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박태환이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국가대표로 출전 자격을 인정했다. 또한 일주일 후 CAS가 잠정처분을 내려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 체육회도 박태환을 명단에 넣어 제출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올림픽 출전을 위해 리우로 향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최종 결과는 전 종목 예선 탈락과 출전 포기였다. 박태환은 첫 경기였던 자유형 400m부터 예선 10위로 탈락했다. 특히 자유형 400m 종목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이었기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다음날 200m 경기에서는 조 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29위를 하였다. 10일의 자유형 100m는 조 4위, 전체 32위로 예선 탈락했다. 이후 1500m는 출전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게 됐다.

## 2) 리우올림픽 ‘박태환 이슈’ 의 특성

리우올림픽 기간 발생한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을 둘러싼 이슈는 도핑 전력과 국가대표 발탁, 경기 성적을 둘러싸고 여론의 온도차가 매우 컸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박태환을 옹호하는 입장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한체육회의 3년 경과기간 규정은 CAS가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국가대표로 여러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을 한 박태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비판하는 측에서는 도핑 전력을 문제 삼았다. 법적인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태환이 맞은 주사에 들어있던 테스토스테론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1935년 금지약물로 지정된 이래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금지 약물이다. 이에 따라 박태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여론은 박태환이 성적향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핑을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역대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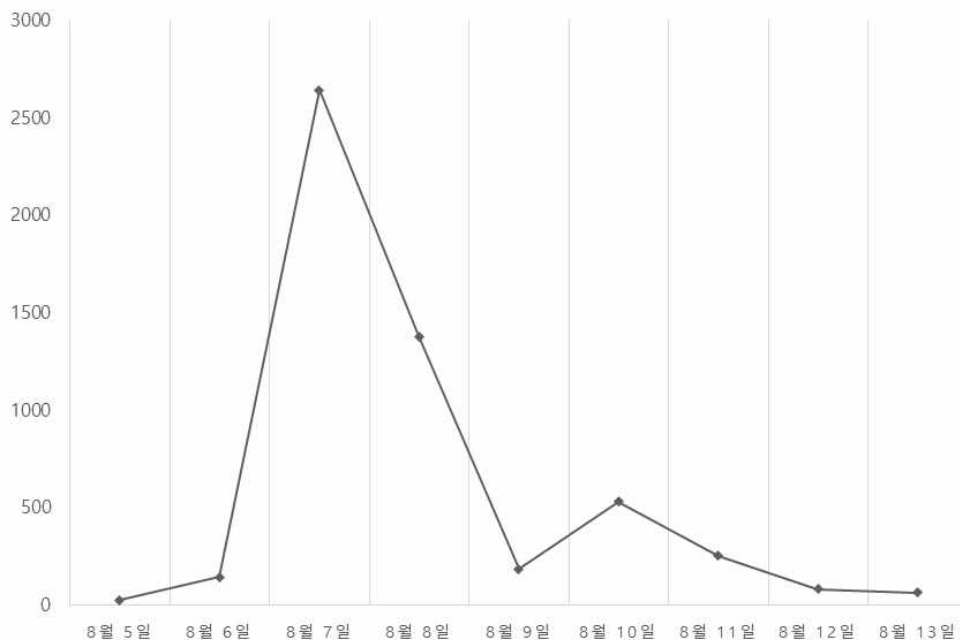
이후 리우올림픽에서 박태환이 전 종목 예선 탈락 및 출전 포기라는 결과를 내자, 박태환에 대해 옹호하는 여론과 비판하는 여론은 다시 팽팽하게 대립했다. 박태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박태환의 수영 예선 탈락의 원인을 수영연맹의 악질적 방해와 협회의 지원이 미비로 꼽았다. 그동안 박태환이 연습할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약물복용 전력에 대해 차가운 눈길을 보내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게 형성됐다.

## 2. 자료 수집

### 1) 뉴스 매체

연구 기간 동안 국내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와 지면과 온라인을 망라한 스포츠 전문매체 10곳(스포츠 조선, 스포츠 동아, 스포츠 경향, 일간 스포츠, 스포츠 서울, 스포츠 월드, OSEN, 마이테일리, MK스포츠, 엑스포즈뉴스)에 게재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국내 스포츠 언론의 전반을 탐색하기 위해 일간지, 지면, 온라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국내에 스포츠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체를 모두 선정하여 전수조사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사는 매체별 홈페이지에서 각각 ‘박태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노출된 기사를 선정했다. 총 455건의 기사 중 사진 기사와 중복 기사 등을 제외한 183건의 기사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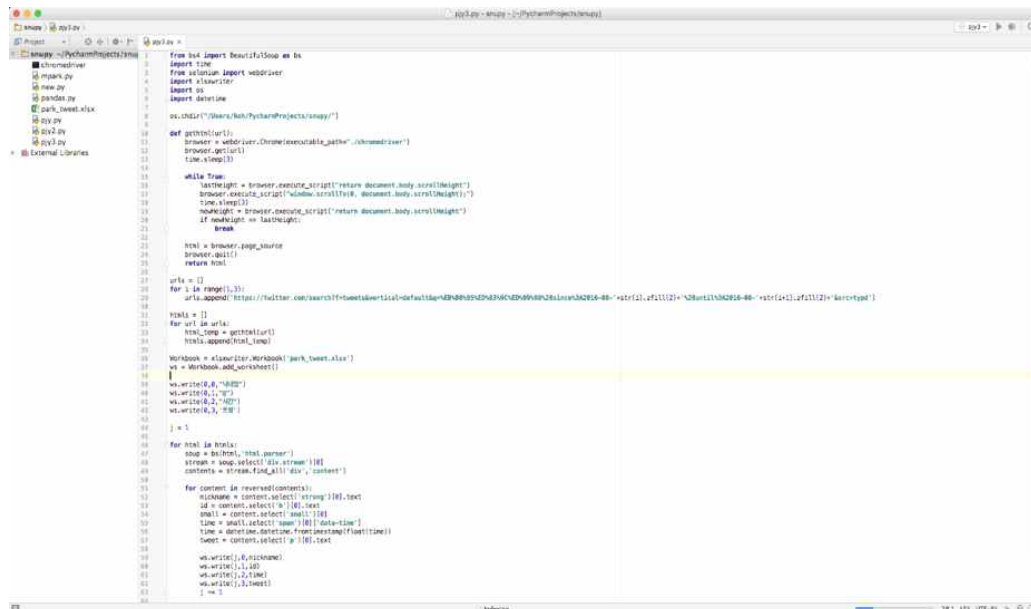
그림 7 박태환 이슈 관련 트위터 버즈량



## 2) 트위터

트위터 역시 동일한 연구 기간 동안 ‘박태환’ 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트위터 공식 홈페이지(www.twitter.com)에서 검색된 실시간(라이브) 트윗을 스크립팅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하여 크롤링 하였다. 총 7,864건의 트윗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기사RT, 이용자 사이의 멘션(대화), 박태환 이슈와 무관한 트윗 등을 제외한 5,023건의 트윗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림 8 파이썬(Python) 프로그램 코딩



```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from selenium.webdriver.common.by import By
from selenium.webdriver.support.ui import WebDriverWait
from selenium.webdriver.support import expected_conditions as EC
import time
import sys
import os

os.chdir('D:\seoul\python\projects\scrapy')

def get_html(url):
    browser = webdriver.Chrome(executable_path='./chromedriver')
    browser.get(url)
    time.sleep(1)

    while True:
        last_height = browser.execute_script("return document.body.scrollHeight")
        browser.execute_script("window.scrollTo(0, document.body.scrollHeight);")
        time.sleep(2)
        new_height = browser.execute_script("return document.body.scrollHeight")
        if new_height == last_height:
            break

    html = browser.page_source
    browser.quit()
    return html

url = 'https://twitter.com/search?f=tweet&tab=realtime&query=박태환&src=hashtag_click&ref_src=twsrc%5Etfw'
html = get_html(url)
html_upper = html.u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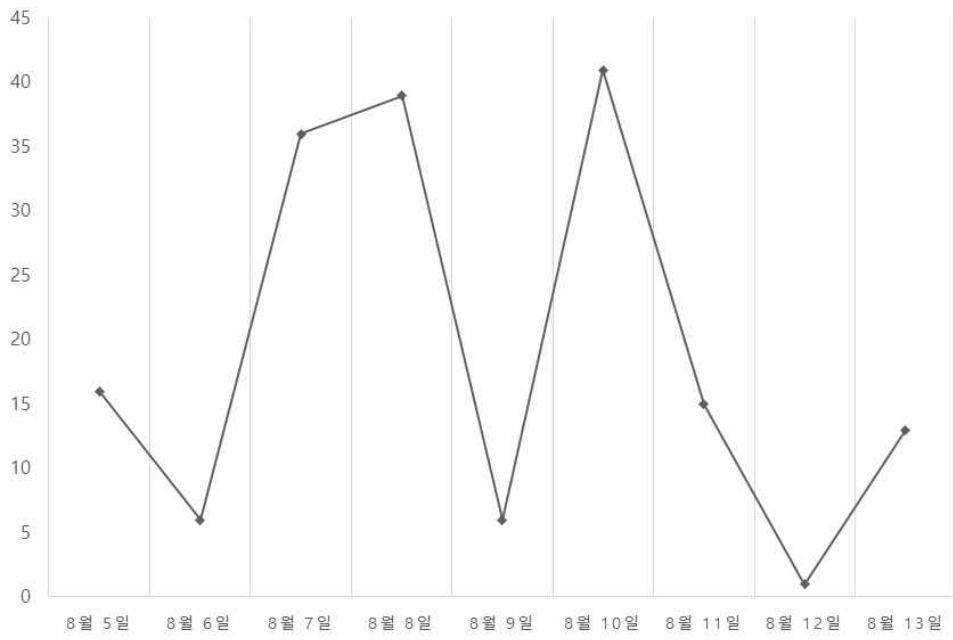
Workbook = xlwt.Workbook('park_tweet.xlsx')
ws = Workbook.add_worksheet()

for i in range(1, 100):
    url = 'https://twitter.com/search?f=tweet&tab=realtime&query=박태환&src=hashtag_click&ref_src=twsrc%5Etfw'
    html = get_html(url)
    html_upper = html.upper()

    for content in reversed(html_upper):
        nickname = content.select('span')[0].text
        id = content.select('span')[1].text
        name = content.select('span')[2].text
        time = content.select('span')[3].text
        time = datetime.datetime.strptime(time, '%a %b %d %H:%M:%S')
        tweet = content.select('p')[0].text

        ws.write(i, 1, nickname)
        ws.write(i, 2, id)
        ws.write(i, 3, name)
        ws.write(i, 4, time)
        ws.write(i, 5, tweet)
        i += 1
```

그림 9 박태환 이슈 관련 기사 수





### 3.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속성 의제에 따라 올림픽참가 당위성, 도핑, 경기전망, 경기결과, 선수활동 지속여부 등 8가지 유목으로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코딩에는 두 명의 대학원생이 코더로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신문기사와 트위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 같은 순서로 시행되었다. 우선 코딩의 실시에 앞서 각 항목에 대한 개념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코더 훈련을 한 후, 코더간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프리테스트(pretests)를 계속하였다. 본 코딩에는 분석대상인 183개의 기사를 두 명의 코더가 동시에 100%를 분석하였고, 전체 기사를 코딩한 데이터를 통해 신문기사의 코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구했다. 트위터 코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코더는 전체댓글(N=5,023)을 모두 분석하였고, 한 명의 코더는 전체 댓글 중 무작위로 선정된 댓글의 30%(N=1,509)를 분석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는 총 분석대상의 10%(Wimmer & Dominick, 2005) 이상인 중복되는 댓글 30%를 통하여 댓글의 코더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 카파 계수(Conhen's Kappa Valu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andis와 Koch(1977)에 따르면 Kappa 수치 0.0-0.2는 약간의(slight) 일치도를, 0.21-0.4는 어느 정도의(fair) 일치도를, 0.41-0.6는 적당한(moderate)한 일치도를, 0.61-0.8은 상당한(substantial)한 일치도를 나타내며, 0.81-0.99는 완벽에 가까운(almost perfect)한 일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코더 간 신뢰도는 뉴스 .86, 트위터 .74로 분석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후 총 9일 간의 이슈 형성 기간을 박태환 선수가 출전한 경기시작 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 등 3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각 시차별 태도의 변화와 언론과 여론 간의 의제 설정효과를 시기별 시차상관분석(cross-lagged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인 8월 5일부터 13일까지를 세 개의 타임 포인트로 나누어 각각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트위터 여론과 미디어의 시점1의 의제와 시점2의 의제, 시점1의 의제와 시점3의 의제, 그리고 시점2의 의제와 시점3의 의제를 상호 비교하여 어느 매체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한 매체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해, 로젤-캠벨 베이스라인(Rozelle-Campbell baseline) 공식<sup>1)</sup>을 이용하였다. 이 공식에서 X1X2 혹은 Y1Y2는 동일한 뉴스매체의 시점1의 의제와 시점2의 의제 간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를 의미하며, X1Y1 혹은 X2Y2는 동시적 상관관계(synchronous correlation), 즉 상이한 뉴스매체 간 횡단적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값은 X1Y2 혹은 Y1X2와 같은 시차교차 상관관계와의 비교 대상이 되어, 이 값을 기준으로 시차를 함축한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을 판단할 수 있다(구교태, 2002; 강희정 & 민영, 2010)

---

1)  $[(PX1Y1+PX2Y2)/2] \{[(PX1X2)^2 + (PY1Y2)^2] / 2\}^{1/2}$ .

표 1 트위터 및 신문 분석 유목 개념 및 예시

| 속성 의제 |            | 개념                          | 트위터  | 신문  |
|-------|------------|-----------------------------|--|---|
| 1     | 올림픽 참가 (+) | 국가대표 발탁 및 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 @Haeseonge 무슨 이유인지 국위선양을 온갖이유로 막은 "대한체육회의 방해"를 뚫고 겨우 참가하게된 박태환 선수 편하게 경기하세요! | -   |
| 2     | 올림픽 참가 (-) | 국가대표 발탁 및 올림픽 참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 | @bigstar586 야 박태환은 애초에 올림픽 참가 하는거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었다.                         | ‘예선탈락·기권’ 박태환, 최악의 무대가 된 리우 (마이데일리 2016.08.11.)<br>엄밀히 말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자격도 없었다.               |
| 3     | 도핑 (+)     | 도핑과 관련하여 박태환을 옹호하는 태도       | @Rondo_of_Death 근데 박태환 도핑 그거 의사측에서실수한걸로알고있는데 아님?                             | 박태환의 '즐기는 레이스', '기적'을 꿈꾼다 (스포츠조선 2016.08.06.)<br>돌고 돌고, 또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한번의 실수가 불러온 운명은 가혹했다 |
| 4     | 도핑 (-)     | 도핑과 관련하여 박태환을 비판하는 태도       | @peacelkh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지약물에 관대하고, 무지하고, 한심하게 대처하는지는 박태환을 보면 알 수 있다.            | ‘잇따른 예선탈락’ 박태환, 더 이상 월드 클래스 아니다 (OSEN 2016.08.10.)<br>더 이상 존경받는 선수가 아니다. 금지약물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

|   |           |                          |  |   |
|---|-----------|--------------------------|--|---|
| 5 | 경기 지원(+)  | 대한체육회 및 수영 연맹 등을 옹호하는 태도 | @Peachsung_life 솔직히 선수단 전체로 보면 박태환이 많이 받는 편인데 맨날 후원없다소리만 하고 있으니  | -   |
| 6 | 경기 지원(-)  | 대한체육회 및 수영 연맹 등을 비판하는 태도 | @ SucA_Ring 그와중에 난 열두시반 박태환 400미터 웰케 미안하고 고맙고 ..... 이번에 지원도 1도없어서 스태프 셋이랑 코치 비용 자비로내고 식사도 아침점심 저기서 주는거먹고 저녁은 도시락 배달시킨다잖아 | '박태환 꾀나무 수영교실 서 어린이들과 함께 훈련' (동아일보 2016.08.08.)<br>박태환은 도핑 적발에 따른 18개월 자격정지와 대한체육회의 '이중처벌'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 했다. |
| 7 | 경기 전망 (+) | 경기 내용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기대감   | @exowith120408 박태환 선수 오랜만에 활약하는거 볼 수 있는건가..!!  | 박태환, 자유형 400m 예선서 쏘양과 격돌 (스포츠동아 2016.08.06.)<br>이번 해 기록은 3분44초26으로 전체 6위에 해당해 메달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8 | 경기 전망 (-) | 경기 내용에 대한 부정적 전망         | @yokan_0525 근데 박태환 나이 때문에...체력이 버터줄까   | 초반 50m 빠고 역부족...박태환, '충격의 예선탈락' 이유는? (스포츠서울 2016.08.07.)<br>중요한 건 이날 예선 탈락으로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은 쓸쓸하게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

|    |           |                            |  |  |
|----|-----------|----------------------------|--|--|
| 9  | 경기 결과 (+) | 경기 결과에 대한<br>긍정적 반응        | @yeayeabtss 한 나라의 대표로 출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있는 지금은 박태환선수를 비난하기보다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 물거품이 된 박태환의 도전... 아직 'ing'<br>(스포츠월드 2016.08.07.)<br>주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예선 탈락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 10 | 경기 결과 (-) | 경기 결과에 대한<br>부정적 반응        | @flygiants 규정상 안되는걸 법정까지 가서 꼭 가야한다고 뽀뽀 우겨서 보내줬더니 예선탈락이네. 꼴좋다.        | 박태환은 왜 결선 진출 실패했나, 결국은 준비 부족이었다 (스포츠조선 2016.08.07.)<br>충격이었다. '실마' 했지만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다. 그것도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다는 주종목 자유형 400m에서 나온 비극이었다.      |
| 11 | 조기 귀국 (+) | 1,500m 예선 불참에<br>대한 긍정적 태도 | @AntiDespair 이번 올림픽은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게 맞았겠지 싶다. 경기력이 너무 안좋았어              | -  |
| 12 | 조기 귀국 (-) | 1,500m 예선 불참에<br>대한 부정적 태도 | @freequeen89 끝까지 최선다하고포기안하는박태환선수 모습을 기대했는데 포기라니 좀 실망이긴 하네요           | '조기 귀국' 박태환, 파란만장했던 28일<br>(마이데일리 2016.08.13.)<br>스스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지만, 이 역시 결과와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길 바랐던 이들의 최소한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

|    |              |                                  |  |  |
|----|--------------|----------------------------------|--|--|
| 13 | 선수 활동 지속 (+) | 2020 도쿄올림픽 참가 및 현역 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 | @_99_94 박태환 도쿄 올림픽도 출전할건가보네.. 그래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겠지. 메달, 따지 못하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기를. | 박태환 도쿄올림픽 도전 시사...은퇴보다 긍정효과 있을까 (스포츠월드 2016.08.11.)<br>이런 가운데 박태환이 선수로 남아 후배들과 경쟁하며 이들을 이끌어 준다면 한국 수영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 14 | 선수 활동 지속 (-) | 2020 도쿄올림픽 참가 및 현역 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archive_ 박태환 진짜 4년뒤에 도쿄올림픽도 해먹겠다고 하는거보면 우리나라 수영은 끝난거야 거기서                         | 박태환을 둘러싼 고민 '도쿄 올림픽 도전과 지도자의 길' (일간스포츠 2016.08.10. )<br>2020년 박태환은 31세가 된다. 수영선수로서 절정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수영선수 중 마린보이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4명밖에 없었다. |
| 15 | 국가주의 (+)     | 박태환에 대한 국가주의적 태도                 | @cowzzang 박태환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영 발전을 위해 애쓴 그 노력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취재일기] 누가 박태환에게 돌을 던지랴<br>중앙일보 2016.08.09<br>박태환은 수영 불모지에서 탄생한 국민적 영웅이다. 도핑 파문을 일으켰지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

|    |          |                            |   |   |
|----|----------|----------------------------|---|---|
| 16 | 국가주의 (-) | 박태환에 대한<br>반국가주의적 태도       | @lucian_rsh 아직도 박태환 못 잃은 사람들 내가 봤을땐 중중 국뽕이야     | -   |
| 17 | 기타 (+)   | 그 밖에<br>박태환에 대한<br>긍정적인 태도 | @Oasis_704 박태환 기사 보는데 악플너무 많아..멤찢               | '아시아 수영 라이벌' 박태환vs쑤양 우정과 경쟁 사이 (일간스포츠 2016.08.05. )<br>박태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의 손을 잡아준 것도 쑤양이었다. 세계적인 수영 스타의 지지 선언은 고독한 마린보이에게 무척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
| 18 | 기타 (-)   | 그 밖에<br>박태환에 대한<br>부정적인 태도 | @iHaruka_A072 문학박태환수영장 이름에서 박태환 빼주세요. 인천의 수치네요. | 박태환의 도쿄와 진중오의 도쿄는 달랐다 (스포츠월드 2016.08.11.)<br>그가 왜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 것인지, 왜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지 몸소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 V 연구 결과

###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1] 박태환 이슈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트위터는 어떤 속성의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 (1) 언론보도의 태도 변화

전체 183개 기사 중에서 중립 62.3%(n=114), 부정 21.9%(n=40), 긍정 15.8%(n=29)이었다. 한국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보도했으나,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약간 많았다. 시기 별로는 세 개 시기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태도는 감소하고, 부정적 태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시기에는 긍정 22.1%, 부정 19.1%였으나, 2시기에는 긍정 12.7%, 부정 22.1%이었으며, 3시기에는 긍정 10.3%, 부정 27.6%이었다

표 2 시기별 언론보도의 태도 변화

|     | 긍정         | 부정         | 중립         | 합계 |
|-----|------------|------------|------------|----|
| 1시기 | 15 (22.1%) | 13 (19.1%) | 40 (58.8%) | 68 |
| 2시기 | 11 (12.7%) | 19 (22.1%) | 56 (65.2%) | 86 |
| 3시기 | 3 (10.3%)  | 8 (27.6%)  | 18 (62.1%) | 29 |

이러한 결과는 경기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2016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박태환은 첫 경기로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주종목 자유형 400m에 나섰다. 경기 전, 대다수의 매체에서는 뒤늦은 대표단 합류로 인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메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방송



MBC는 리우 올림픽 특집 다큐멘터리 ‘박태환의 마지막 승부’를 편성하는 등 메달 획득을 기대하며 분위기를 고조하는 형상을 보였다. 따라서 경기 이전 기간이 포함된 1시기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7일 새벽 열린 조별 예선에서 조 4위, 전체 10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박태환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을 다룬 2시기에 박태환은 자유형 200m 경기에서는 조 8위로 꼴찌로 들어왔으며, 전체 29위를 하였다. 또한 10일의 자유형 100m는 조 4위, 전체 3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냈다. 전반적으로 경기 결과를 중립적으로 보도했지만, ‘충격’, ‘최악’ 등의 부정적이면서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표 3 언론 보도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빈도 순위

| 순<br>위 | 1시기          |               | 2시기           |               | 3시기            |              |
|--------|--------------|---------------|---------------|---------------|----------------|--------------|
|        | 1            | 경기 결과<br>(-)  | 29<br>(29.6%) | 경기 결과<br>(-)  | 32<br>(39.5%)  | 경기 결과<br>(-) |
| 2      | 경기 전망<br>(+) | 24<br>(24.5%) | 경기 전망<br>(-)  | 14<br>(17.3%) | 선수활동<br>지속 (-) | 3<br>(18.7%) |
| 3      | 경기 전망<br>(-) | 21<br>(21.4%) | 경기 결과<br>(+)  | 11<br>(13.5%) | 선수활동<br>지속 (+) | 3<br>(18.7%) |
| 4      | 기타 (+)       | 8<br>(8.1%)   | 경기 지원<br>(-)  | 10<br>(12.3%) | 경기 결과<br>(+)   | 2<br>(12.5%) |
| 5      | 경기 지원<br>(-) | 6<br>(6.1%)   | 기타 (+)        | 9<br>(11.1%)  | 기타 (-)         | 2<br>(12.5%) |

3시기 박태환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00m 예선 출전을 포기했다. 이후 언론은 박태환의 저조한 올림픽 성적을 분석하고 은퇴 혹은 선수 생활 연장 등 향후 활로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며 1,2시기와 비교해 기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속성의제의 경우, 1시기에서 3시기까지 경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유목이 가장 많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진행에 따라 시기별로 의제의 차이가 있었다. 1시기에는 경기전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유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경기 내용을 예상하는 프리뷰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시기에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이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대한체육회 및 수영연맹의 지원 미비라는 이슈가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유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3시기에는 1500m 예선 경기 불참으로 조기 귀국이 결정됐다. 이에 선수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기사가 빈도 순위에서 2, 3위를 차지했다.

## (2) 트위터의 태도 변화

전체 5,323개의 트윗 중에서 중립 32.0%(n=1,702), 부정 28.2%(n=1,499), 긍정 40.2%(n=2,141)이었다. 전체적인 수치는 긍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시기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 $\chi^2 = 245.322$ ,  $df = 4$ ,  $p = .000$ )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태도는 감소하고, 부정적 태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버즈량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시기에는 긍정 45.0%, 부정 19.6%였으나, 2시기에는 긍정 36.9%, 부정 35.5%이었으며, 3시기에는 긍정 23.7%, 부정 48.8%이었다

표 4 시기별 트위터의 태도 변화

$\chi^2 = 245.322$ ,  $df = 4$ ,  $p = .000$

|     | 긍정            | 부정          | 중립          | 합계           |
|-----|---------------|-------------|-------------|--------------|
| 1시기 | 1,270 (45.0%) | 552 (19.6%) | 996 (35.4%) | 2,818 (100%) |
| 2시기 | 775 (36.9%)   | 746 (35.5%) | 579 (27.6%) | 2,100 (100%) |
| 3시기 | 96 (23.7%)    | 198 (48.8%) | 127 (31.3%) | 405 (100%)   |

경기 시작 이전부터 첫 번째 경기였던 자유형 400m가 포함된 1시

기에는 경기에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트윗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기 시간 및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중립적인 트윗 역시 상당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박태환이 자유형 200m 경기에서는 조 8위, 전체 29위를 기록하고, 이튿날 열린 자유형 100m에서 조 4위, 전체 32위로 안좋은 성적을 내자 부정적인 태도의 트윗 내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2시기까지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비등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3시기 박태환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00m 예선 출전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하자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표 5 트위터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빈도 순위

| 순위 | 1시기       |             | 2시기         |             | 3시기         |            |
|----|-----------|-------------|-------------|-------------|-------------|------------|
|    | 1         | 경기 전망 (+)   | 496 (27.1%) | 도핑 (-)      | 432 (28.4%) | 도핑 (-)     |
| 2  | 경기 결과 (+) | 479 (26.2%) | 경기 결과 (+)   | 340 (22.3%) | 경기 결과 (+)   | 41 (15.7%) |
| 3  | 도핑 (-)    | 309 (16.9%) | 기타 (-)      | 149 (9.8%)  | 기타 (-)      | 33 (12.6%) |
| 4  | 기타 (+)    | 156 (8.5%)  | 경기 전망 (+)   | 141 (9.3%)  | 조기 귀국 (-)   | 24 (9.2%)  |
| 5  | 기타 (-)    | 136 (7.4%)  | 경기 지원 (-)   | 128 (8.4%)  | 기타 (+)      | 22 (8.4%)  |

속성의제의 경우, 1시기에서 3시기까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적발된 도핑에 대한 부정적인 유목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는 리우 올림픽에서 열린 경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였지만, 운동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슈였으며 올림픽 참가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1시기에는 경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유목(27.1%, n=496)이 1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또한 2순위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이는 유목(26.2%, n=479)이 랭크됐다. 1순위에는 전체적으로 박태환에 대해 긍정적 태도의 속성의제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박태환의 성적이 저조하자 2시기부터는 도핑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의제가 1순위로 올라왔다. 이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발생한 박태환의 도핑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뒤이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이는 경기결과에 관한 긍정적인 속성의제가 2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3시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2. <연구가설 1,2>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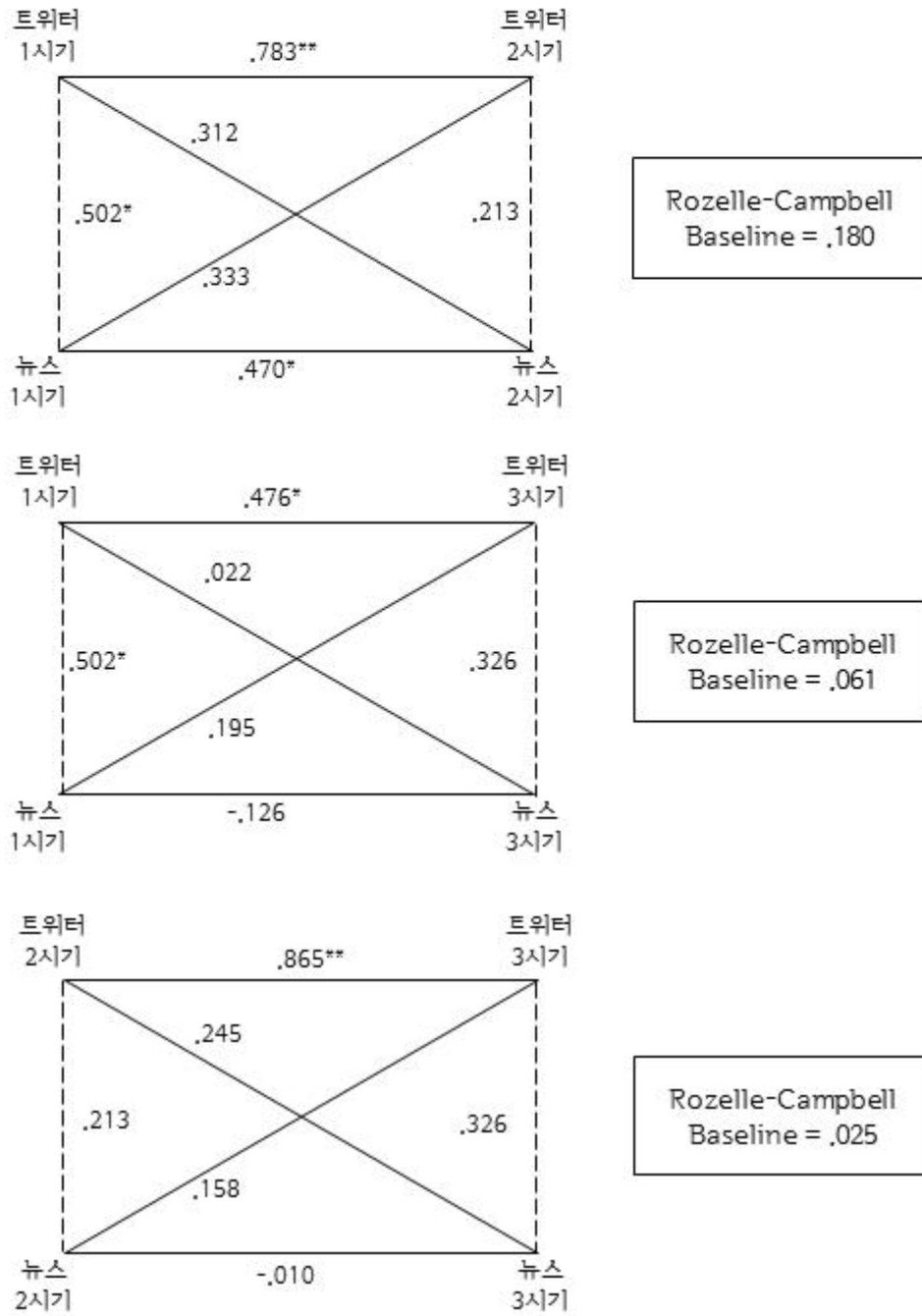
[연구가설 1] 뉴스의 속성의제가 다음 시점의 트위터의 속성의제에 의제 설정 효과를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트위터의 속성의제가 다음 시점의 뉴스의 속성의제에 역의제 설정 효과를 줄 것이다.

표 6 트위터와 뉴스의 박태환 관련 속성의제 등위상관관계 계수

|    |     | 트위터   |      |      |
|----|-----|-------|------|------|
|    |     | 1시기   | 2시기  | 3시기  |
| 뉴스 | 1시기 | .502* | .333 | .195 |
|    | 2시기 | .312  | .213 | .158 |
|    | 3시기 | .022  | .245 | .326 |

그림 10 트위터, 뉴스 시차상관분석 결과 값



\*p<.05, † p<.10 (양측검정)

트위터와 뉴스의 속성의제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와 역의제설정의 경쟁가설을 검증했다. 우선 트위터의 경우, 시점1-시점2(.783\*\*), 시점1-시점3(.476\*), 시점2-시점3(.865\*\*)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 값을 나타냈다. 반면 뉴스는 시점1-시점2(.470\*)에서만 상관관계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트위터와 뉴스의 상호관의 상관 분석결과 [그림 10]와 같이 트위터와 뉴스의 시점1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2\*). 이는 시점1에서 트위터와 뉴스가 동일시점에서 상호 간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밖의 트위터와 뉴스 사이에는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의 특히 다른 시점에서의 트위터와 뉴스의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가설 1과 2는 모두 기각되었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과 관련된 일련의 이슈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여론의 의제설정이론과 역의제설정이론의 경쟁가설을 검증했다. 데이터는 국내 5대 일간지와 10대 스포츠 매체에 게재된 기사와 ‘박태환’ 키워드로 검색된 트위터 트윗을 이용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속성 의제에 따라 8가지 유목으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를 각각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여 연구에 사용했다.

[연구문제 1]을 통해 트위터와 뉴스가 각각 어떤 속성의제를 다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1시기 트위터에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특히 예선 탈락한 400m 경기 이전에는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박태환을 응원하는 긍정적 태도가 많이 관찰됐다. 그러나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예선 탈락하며 박태환의 성적이 저조하자, 도핑과 관련된 부정적 태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박태환의 도핑 적발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대중들이 박태환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이러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뉴스 보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박태환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태도와는 별도로 저조한 대회 성적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박태환의 뉴스보도가 리우 올림픽 경기 성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제설정이론과 역의제설정이론의 경쟁가설을 검증한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의 경우, 미디어와 여론의 시점1에서 상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미디어와 여론은 시차 간 상관관계는 물론, 동일 시기에서도 상관관계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언론보도와 여론의 의제가 1시점 이후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트위터 여론이 새로운 의제를 주도하기보다, 과거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트위터를 통해 여론을 살펴본 결과 2, 3시기에 이르러 박태환 이슈 관련하여 ‘인천 AG 도핑’ 의제가 중심을 이뤘다. 반면, 언론 보도는 현재 진행 중인 올림픽 경기 내용 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여론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제시해야 하는 역의제설정이 관찰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기 내용에 대해 분석한 언론의 기사에 여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의제설정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박태환의 성적이 저조함에 따른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엘레 노이만(Noelle-Neumann, 1984)은 지각된 여론동향에 따라 자기 의견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여론동향이 우세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나선이론’ (The spiral of silence)이다. 보통 트위터는 140자 내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사용자들 간의 관계가 축적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상민·황보환·지용구, 2010). 즉 자신의 팔로워에게 트윗을 노출하며 일종의 개인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태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트위터에서 강세를 보일수록, 박태환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1시기에서 2시기, 3시기로 흐르며 여론과 언론보도 모두 박태환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디어의 경우, 박태환의 성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 미비와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론의 경우 과거 도핑 전력으로 형성된 단순 비호감을 표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태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박태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형태를 보였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박태환과 관련된 이슈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수그러들며 연구 기간이 짧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박태환의 성적이 비교적 저조함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후 여론의 관심도 메달 획득 중목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날짜에 맞춰 연구 기간이 다소 축소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을 늘려 세부적으로 의제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박태환과 관련된 이슈가 다양한 세부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 15개 이상의 유의미한 세부 의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18개의 세부 의제를 설정했지만, 이중 기간에 따라 3,4개의 의제에만 태도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제의 변화를 선명하게 관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슈 선정에 있어 세부 의제의 다양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적인 시사점으로는 여론과 미디어의 의제 설정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서술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의제의 변화가 뚜렷한 이슈를 선정할 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차 상관 분석’ 방법 외에도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밀하게 통계 값이 산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포츠 언론사의 기자 및 미디어 담당자는 이슈 선정 및 의제 설정 과정에서 여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구교태 (2002). 웹사이트 캠페인이 기존 뉴스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에 미치는 영향 : 의제설정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 46-75.
- 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1), 103-118.
- 김성태, 김혜령 (2011). 인터넷을 통한 의제과급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19(2), 297-331.
- 김성태, 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 의제 과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3), 175-204.
- 김위근 (2014).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언론정보학보, 66, 5-27.
- 김은미, 양정애, 임영호 (2012). 온라인 뉴스환경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속성의제설정. 한국방송학보, 26(3), 94-134.
- 김은미, 이주현 (2011).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한국언론학보, 55(6), 152-180.
- 김재범, 이계현 (1994). 여론과 미디어 : 다원적 무지와 제3자 가설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1), 63-86.
-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5-73.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45(2), 117-155.

- 박선희 (2002). 인터넷 이용자의 뉴스 생산 참여. 한국방송학보, 16(2), 149-177.
- 박준, 최홍, 박성민. (2011) 소셜미디어가 여는 새로운 정책환경. 삼성경제연구소, 808호
- 반현 (2004). 선거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4), 175-197.
- 반현, 최원석, 신성혜 (2004).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5, 65-102.
- 반현 (2007).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7-53.
-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4(2), 192-234.
- 안종목 (2011).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네이버 뉴스>와 <야후 미디어>의 속보성, 상호작용성, 관련기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1), 187-218.
- 양선희 (2008).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의제설정효과 : 신문, TV, 포털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52(4), 81-104.
- 이건호, 유찬운, 맥스웰 맥콕스 (2007). 환경 문제의 2차 의제설정효과. 한국언론학보, 51(2), 153-179.
- 이상록, 윤영민 (2012). 스마트 폰 앱 뉴스의 연성화 분석. 언론과학연구, 12(3), 330-354.

이승희, 임소혜 (2014). 트위터의 매체 간 의제설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139-149.

이승희, 송진 (2014). 재난보도에 나타난 소셜 미디어와 방송 뉴스의 매체 간 의제설정. 한국언론학보, 58(6), 7-39

이윤경, 정수영. (2011). 한·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저널리즘 비교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 105-142.

임재구 (2014). 스포츠 저널리즘의 보도 행태에 담긴 스포츠 미디어에 관한 담론. 한국체육철학회지, 22(4), 59-77.

조화순, 장우영 & 오소현 (2012).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정보화탄생, 19(3), 19-35.

최수연, 임종섭 (2013). 지상파 방송뉴스와 트위터, ‘나는 꿈수다’ 의 의제 관계성.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4), 5-35.

최진호, 한동섭 (2011). 정치인 트위터와 신문·방송뉴스의 의제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2), 501-532.

한혜경 (2003) 여론 지각 매체로서 인터넷에 관한 연구: 디지털 조선과 오마이뉴스 독자 집단의 의사합의 지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4), 5-33.

홍주현, 박미경 (2011). 선거 기간 중 트위터에 나타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ion)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4), 257-301.

황유선 (2011). 트위터 이용이 사회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6), 56-81.

황혜정 (2009). 트위터, 기업과 고객의 소통채널 될까. LG Business Insight, 1051, 40-46.

Akcora, Cuneyt Gurcan., Bayir, Murat Ali., Demirbas, Murat., Ferhatosmanoglu, Hakan (2010). Identifying Breakpoints in Public Opinion. In 1st Workshop on Social Media Analytics.

Baum, M. A. (2002). Sex, lies, and war: How soft news brings foreign policy to the inattentive public.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01), 91-109.

Chen, J., Nairn, R., Nelson, L., Bernstein, M., & Chi, E. (2010). Short and tweet: experiments on recommending content from information stream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185-1194.

Cogburn, D. L., & Espinoza-Vasquez, F. K. (2011). From networked nominee to networked nation: Examining the impact of Web 2.0 and social media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the 2008 Obama campaign.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0(1-2), 189-213.

Cohen, B. C.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Deuze, M.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2), 203-230.

Ghanem, S. (1997). Filling in the tapestry: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3-14.

Iyengar, S. (1979). Television news and issue salience: A reexamination of the agenda-setting hypothesi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7, 395–416.

Iyengar, S., Peters, M. D., & Kinder, D. R. (1982). Experimental demonstrations of the “not-so-minimal” consequences of television news progra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04), 848–858.

Iyengar, S., & Kinder, D. R. (2010).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m, S. H., Scheufele, D. A., & Shanahan, J. (2002). Think about it this way: Attribut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and the public's evaluation of a local issu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1), 7–25.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159–174.

Leonard, W. M. (1998).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Lippma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The Free Press.

Narang, S. (2009). *Compress Sensing of Public Opinion in Social Network Using Ising Model*.

Noelle-Neumann, E. (1984). The spiral of silence: A response.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66–94.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McCombs, M., Llamas, J. P., Lopez-Escobar, E., & Rey, F. (1997). 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4), 703–717.

McCombs, M., Lopez-Escobar, E., & Llamas, J. P. (2000). Setting the agenda of attributes in the 1996 Spanis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77–92.

McCombs, M. (2013).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John Wiley & Sons.

Rafaelli, S. (1988). Interactivity: From new media to communication. *Sage annual review of communication research: Advancing communication science*, 16(CA), 110–134.

Wanta, W., & Foote, J. (1994). The president-news media relationship: A time series analysis of agenda-sett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8(4), 437–448.

Wimmer, D. R., & Dominick, R. (2005).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Belmont.

Zhao, D., & Rosson, M. B. (2009). How and why people Twitter: the role that micro-blogging plays in informal communication at work. In *Proceedings of the ACM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pporting group work*, 243–252.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Public Opinion on Controversial Issue of Mega Sporting Events: Investigating Competing Hypotheses for Agenda-setting and Reverse Agenda-setting Theory**

Jeeyoo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eting hypotheses for agenda-setting and reverse agenda-setting theory on controversial issue (the first-level agenda) of mega sporting events by analyz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public opinion.

In order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purpose, the issue on swimmer Tae-Hwan Park during 2016 Rio Olympics was selected as a research object the study. And we used a conventional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n this study using news and tweeter, social network service, toward the issue; the five major daily news paper (The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The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the ten major sports media (Sports Chosun, Sports Donga, Sports Seoul, Daily Sports, Sports Kyunghyaeng, Sports World, and etc.), and the tweets on twitter.

Specifically, for 9 days from August 5 to August 13, 2016, we collected data from news articles and tweets mentioned about Tae-Hwan Park's issue by crawling news on website and tweeter using the Python.

A total of 183 sample data were used among the collected 455 news articles in media, except for photo news and repeated articles. In public opinion, a total of 5,023 sample data were collected without re-tweet, mention, and tweet that were not relevant to the Tae-Hwan Park's current issue on twitter.

The data was categorized into eight second-level agenda dimensions (Justification for attending the 2016 Rio Olympics, Doping, Game result, and etc). And the dimens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 on the agenda.

Next, the 9 days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 The first of that periods is starts about three days before the race, the second period is during the race, and the third period is three days after the race. Finally the descriptive analysis and cross-lagge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genda-setting between the news media and public opini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ublic opinions and news articles remarkably exist more than negatives, but, more negative public opinions and news articles after the race. Second, the second-level agenda between the twitter and news media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three periods. In this context, Media and Public Opinion seem to set an independent agenda on the controversial issue of Mega Sporting Events

---

Keywords: agenda-setting, reverse agenda-setting, news media, public opinion, sporting events